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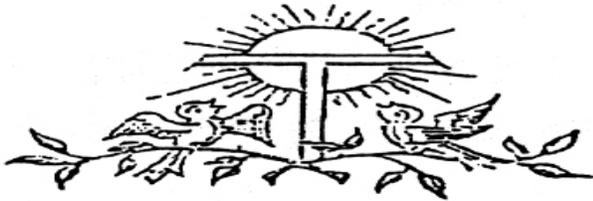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5-12호 2005년 12월 18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형제들은 가톨릭 신자답게 생활할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의 제1회칙 19장

모든 형제들은 가톨릭 신자다와야 하고 가톨릭 신자답게 생활하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의 말이나 행동이 가톨릭 신앙과 생활에서 벗어나는데도 그 스스로 이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 형제회에서 결정적으로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령에 관한 일들과 우리 수도회의 생활에 어긋나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 모든 성직자들과 모든 수도자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그들의 품과 직과 봉사직을 존중하도록 합시다.



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 불을 붙입니다.

님에 대한 관상은 우리의 휴식이고,

님의 어지심은 우리의 만족입니다.

님의 감미로움은 우리를 가득 채우고,

님에 대한 생각은 부드럽게 빛나고,

님의 향기는 죽은 이들을 살리며,

님을 영화롭게 직접 뵈는 것이

천상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성녀 글라라가 프라하의 성녀 아네스에게
보낸 넷째 편지 11-13



그레치오 동굴

1223년 프란치스코는 세상에서 여태껏 볼 수 없던 방법으로 성탄 축일을 지냈다. 그분은 그레치오에 친구이자 좋은 후원자인 요한 벨리따에게 '그레치오 수도원 가까이 숲 속에 있는 바위굴에 짚을 가득 담은 구유와 소와 나귀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게 탄생하셨는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요한 벨리따는 프란치스코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고 성탄전날 한밤중에 형제들은 크리스마스 축일을 지내려 모여들었다. 프란치스코 형제는 아기 예수께 대해 설교했다. '이날 밤에 탄생하신 가난하신 왕, 다위 고을에 계신 주 예수님께 대하여 부드러운 말로 얘기했다.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때마다, 타오르는 사랑에 압도되어 베들레헴의 아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베들레헴이란 말을 할 때는 마치 양이 우는 듯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때는 그 이름이 입술을 스칠 때 그 이름 뒤에 남겨둔 감미로움을 맛보려는 듯이 입맛을 다셨다. 이 거룩한 밤샘은 펍 늦게야 끝났으며,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제각기 집으로 돌아 갔다. 후일, 구유가 안치된 곳은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되었고, 이 구유 위에 체대를 꾸며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의 영예를 기리고 있다. 그리하여 말못하는 동물들이 구유에서 짚을 먹던 곳이 지금은 사람들이 흠 없는 어린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고 있다.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 피를 흘리셨고, 성부와 성신과 더불어 영원한 하느님의 영광 중에 생활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요르겐센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려면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평화의 사람은 복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마태 5,9). 진정 평화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평화를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권고15) 실제로 평화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노릇이다. 태양의 노래에서도 이런 언급이 나온다.

“평화로이 참는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이시여! 당신께 면류관을 받으리로소이다.”(1절) 평화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그분께 면류관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정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프란치스코의 정신이다. 진정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인내가 필요하다. 마음의 평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참된 기쁨은 인내에 있으며, 인내로부터 참 평화가 나오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먼저 이렇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평화를 전해 주고 기원해야 할 소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평화는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뜻이다. 곧 하느님의 뜻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평화의 사람이며 하느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평화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 어떤 인간적인 지혜 때문이 아니고 불목의 결과가 무서워서도 아니며, 자신의 이익 때문은 더더욱 아니며,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동기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몸과 마음에 평화를 간직하는 것이다. 또한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 사이에 성장되고, 다스리게 되기 위한 것이다.

프란치스코에 따른 평화는 궁극적 인간 완성, 행복, 기쁨, 자유 등이 한데 어우러진 것으로서,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하는 완전한 새로운 창조 곧, 구원을 말하다. 따라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며 이를 하느님의 평화라 할 수 있다.

- '회개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에서

-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 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집착의 무게

자신의 삶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미 처해 있는 상황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사향을 원하는 <집착의 무게>이다.

눈에 빠졌을 때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면 더욱 더
빠져 들듯이 이미 와 있는 상황을 내 것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고달프고 힘들 수 밖에 없다.

자기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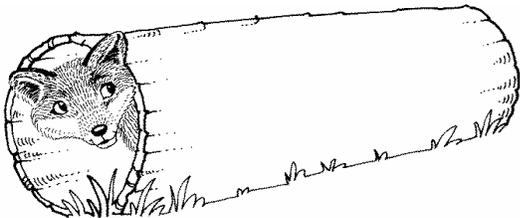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만 달리하면
자신에게 이미 있었는데도 미처 알지 못했던
감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다 좋은 일도, 다 나쁜 일도 없으며
과거의 삶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임을 알아야 한다.

내게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게 다가오는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좋고 나쁨의 구분하는 자체가 집착의 뿌리가 된다.

-좋은 글에서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어느새 첫눈을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느님. 무척이나 아름다운 하얀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런 날
이면 그 누군가 좋은 사람과 추억을 만들고
싶어 김이 모락 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잔
앞에 놓고 아름답게 수 놓아지는 밖을
보면서 사랑에 흠뻑 젖고싶은 충동에 가슴
이 두근거리 옵니다. 온통 하얀 세상을 그
누가 아름답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얀 세상
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섭리를 찬미
하지 않을 이가 또 있겠습니까. 앙상한
나무가지에도 전신줄에도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얗게 하얗게 덮어버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또 한 번 하느님께 감사.
나는 이렇게 함박눈이 쏟아지면 큰 은총
속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MD 수도원
에서 대림피정을 하고 있었을때 입니다.
한편이 큰 창쪽으로 밖에 소리없이 함박눈
이 내릴 때 신비에 젖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나는 살고 있구나. 또한 하느님의
말씀 속에서 이 아름다운 함박눈까지 보여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선택된 축복받은 은총속에 있는
기분이 들어서 나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 마음이 아플땐 그때를 생각하며 하느
님의 사랑을 재충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눈
내리듯 분별없이 골고루 주시는 은총받아
우리 모두 정화되어 사부성인과 함께 뜻
깊은 성탄을 맞이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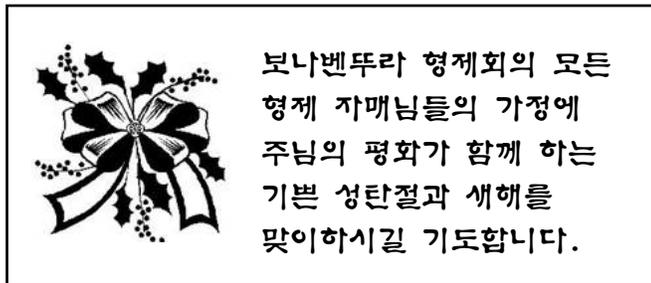
-보나벤투라회 회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1 요한 2,10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1월15일 월례회때 수도 신부님을 모시고 예전과 같이 미사가 있겠습니다.
- + 성지 순례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은 1월 월례회때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월보에 글을 올리고 싶으신 분은 언제라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동안 회비나 후원회비가 밀리신 분은 2005년 12월까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중 기억합니다 ...

- + 그동안 저희들의 영적 보조자로 수고해 주신 김병두 신부님께서 12월 27일 한국으로 가십니다. 신부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리며 ...
- + 광종무 형제님의 모친 김간난 에밀리아 자매님께서 15일 별세 하셨습니다. 16일 연도가 있었고 ...
- +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천지지변과 전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부상당한 사람들 그리고 집과 가진것 모두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



12월 월례회 시간표

- 1:00 PM - 다과
- 1:30 PM - 양성 교육
- 3:00 PM - 미사
- 3:40 PM - 친교, 회비/후원회비 납부
- 4:00 PM - 월례회

✂ 미사 성가: 지침서 ✂

- 입당: 76번 임하소서 임마누엘
- 봉헌: 3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 마침: 6번 우리는 형제로

신자들의 기도:
김영자, 광재옥, 김옥순, 허명자

✕
본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12월 8일
조은자 마리아

12월 27일
지수성 요한
강동훈 요한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병두 신부 O.F.M. berdiofm@hanmail.net